



# 報會窓同總士空

發行人：朴 鎔 泰  
編輯人：姜 容 求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 能成奇蹟 是爲天才 — 試鍊을 克服하고 再起하자 —



朴 鎔 泰 會長(空士 5期)  
· 前 空士 校長(豫少將)

“能成奇蹟 是爲天才.” 이 말은 “능히 奇蹟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곧 天才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로 筆者가 18년 전 江陵에 있는 第18戰團飛行團長으로 赴任했을 때 내건 指揮統率方針이었다.

當時 第18戰團飛行團은 18基地戰隊에서 戰團飛行團으로 昇格된 지 2년 未滿의 新設 飛行團으로 空中 戰團戰力은 F-5 A/B 2개 戰團飛行大隊에 없었으며 兵力規模도 작고, 飛行團本部 參謀들은 타 飛行團은 中領級으로 補任되어 있는데 반하여 大部分 少領級으로 補任되어 있어 우리는 2級 飛行團에서 일하고 있다는 自虐과 敗北意識이 澎湃해 있었다.

이와 같이 士氣가 失墜된 部隊을 이끌고 韓半島 東部 領空防衛의 莫重한 所任을 踴躍없이 遂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飛行團 將兵들에게 “信念은 奇蹟을 낳고 努力은 天才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 飛行團이 비록 規模는 작고 配屬된 戰力과 人的 構成은 微弱하지만 空軍의 最優秀飛行團이 되겠다는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이 信念을 實現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最善의 努力을 다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目標은 반드시 成遂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 奇蹟을 創造하는 天才가 되자!”고 呼訴했다.

이와 같은 나의 呼訴가 將兵들의 共感을 얻어 2年間 飛行團長 在任中에 한 건의 飛行事故나 地上 事故 없이 各種 作戰 및 訓練任務를 遂行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最優秀 飛行團으로는 選定되지 못했지만 優秀飛行團으로 選定되어 國防部長官 表彰을 받은바 있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IMF 管理體制하에서 여러

가지 難關과 試鍊을 겪고 있다. 지난해 年末 우리는 一瞬에 國家不渡 危機의 수렁에 빠질뻔한 國難을 겪었다. 多幸히 國際通貨 基金(IMF)의 救濟金繼으로 一息 破局은 면했지만 그 後遺症은 너무나 苛酷하다. 開發途上國의 先頭에서 高度成長을 持續해 왔던 우리 經濟는 構造調整 過程에서 많은 企業들이 倒産되고, 失業率이 史上 最惡의 狀態에 달해 일자리를 잃고 彷徨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없이 많다. 그리고 蹣跚하는 物價에 國民들은 激甚한 喪失感과 挫折感 속에서 苦痛스러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絶望과 失意에 빠져 있을 수 만은 없다. 또 일찍이 想像조차 못했던 이와 같은 經濟危機 事態를 惹起시킨 原因이 누구의 잘못에 基因한지 查任問題란 따지면서 가까운 時間을 虛費할 수도 없다. 勿論, 此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責任所在을 明確히 辨明하고 適切한 再發防止 對策도 樹立해야 하겠지만, 이보다 먼저 全國民이 過去 잘못에 대한 自己反省부터 해야 한다. 이와 같은 經濟危機를 招來케 한 責任에 관한 限 우리 國民 누구도 責任 앞에 自由로울 수 없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難關을 하루 속히 克服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 難關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再起하려면 “第2의 漢江의 奇蹟”을 期必으로 實現하겠다는 굳은 信念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當面課題다. 그리

고 우리 國民 모두 다 自己過誤를 反省하고 過去의 잘못된 慣行과 習慣을 버리고 새롭게 變化하려는 刻苦의 努力을 해야 한다.

戊寅年 새해가 새로운 跳躍과 飛上의 所望 가운데 始作되었다. 우리 모두 지난해의 惡夢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자! 于先 政治人들이 變해와 變革을 통해 不當하게 얻은 錢은 돈으로 政治를 하던 慣行으로부터 깨어서 脫皮해야 하고, 또 慢性的腐敗과 對決의 政治를 打破하고 黨利黨略보다는 國民幸福을 위해 妥協과 說得의 政治를 實現하려는 努力이 있어야 한다.

우리 政治는 1948년 大韓民國 樹立 以來 처음으로 野野間에 政權交替를 이룩했다. 이제 새로운 政治秩序를 確立할 絶對의 機會가 왔다. 執權者와 輿黨은 和解와 和合의 바탕 위에서 傲慢한 權力誇示와 推抽한 政治 蔽覆을 斷乎히 排擊하고 醜惡한 不正과 腐敗의 誘惑을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國民은 新政府를 信賴하고 絶對的인 支持와 積極的인 協力を 보내 줄 것이며, 이와 같이 全國民이 이 心機를 協力한다면 우리는 合心難關을 쉽게 克服하고 短時日 내에 再起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公務員들이 心機一轉해야 한다. 公務員들은 國民의 心부름꾼이라는 本分을 忘却하고 各種行政規制를 빌미로 賂物을 받아 私利私慾을 채우기에 急급했던 舊習을 完全히 打破해야 한

다. 이제 새 政府의 公務員들은 非能率, 無責任, 無事安逸과 腐敗의 質 모습을 果敢하게 깨뜨리고 名實相符한 새 政府의 새 일꾼으로 國民에게 奉仕하는 새로운 公務員像을 定立하기 위해 獻身的 努力을 傾注해야 한다.

어려운 政治參與에 關心을 갖기보다는 오직 國防衛와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하는 軍本然의 任務에 忠實하겠다는 覺悟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只今 死活的 危機에 처해 苦痛받고 있는 企業人들도 새로운 經營意識으로 轉換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經濟를 이만큼 發展시킨 첫 번째 功勞는 企業人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反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企業人들이야말로 우리 經濟發展의 主役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經濟難局을 招來한 責任의 相當部分 또한 企業人들에게 있다는 점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放縱한 經營과 無謀한 擴張이 自己企業뿐만 아니라 金融機關까지 破局으로 몰고 갔다. 企業人들의 지니친 慾心이 終局的으로 國家와 國民에게 엄청난 짐을 지워 주었다는 점, 예를 들면 自己反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企業을 健全하게 經營하여 國際競爭力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하며, 이 어려움을 勞動者에게만 轉嫁하여 整理解雇로 모든 問題를 解決하려 하지 말고 失業率을 最小化하려는 努力이 絶對的으로 必至한 時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勞動者 또한 過去의 잘못된 鬭爭方式를 뒤유치

고 企業과 勞動者는 眞情으로 共同運命體라는 새로운 意識을 涵養해야 할 때다. 오늘날 우리 企業이 여기까지 成長한 背景에는 資本만이 全部가 아니요 수많은 勞動者들의 勞苦와 熱情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事實을 否認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過去에 우리 勞動組合의 鬭爭樣相을 돌이켜 보면 간혹 國家經濟는 어떻게 되든, 또 社會의 經營는 어떻게 되든 우리가 알바 아니요, 오직 내 鬭爭이 많이 쟁기겠다는 極限鬭爭이 國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제 企業과 勞動組合은 共同運命體라는 事實을 더욱 確固하게 認識하고 對決보다는 協同하는 風士를 造成하여 無限鬭爭의 世界經濟를 안에서 勝利하기 위한 努力이 切實히 要求되는 時임을 銘心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國民 모두의 自省과 새롭게 變化하려는 努力을 促求하고자 한다. 특히 一部 既得權層의 奢侈와 浪費 그리고 特權意識이 이웃의 相對的 貧困感을 刺戟하고 階層間的 差和을 深化시켜 앞을反省해야 한다. 일부 沒知한 權力層과 狎富들의 지나친 奢侈와 享樂行爲이 하늘의 審判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그 代價를 痛痛히 치르고

(2면에 계속)

###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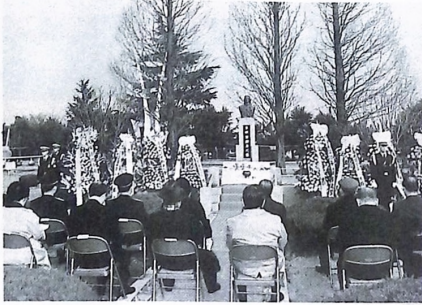
#### 눈 내리는 아침에

창 밖으로 눈이 평평 내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양상한 나뭇가지가 더 초라하게 보인다  
한 장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벽 난로에서 타고 있는 불꽃을 바라보며  
스테레오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아를 듣는다  
창 밖으로 보이는 길 건너 저편에  
쓰러져 가는 집에는  
우리창이 깨졌다  
임시로 IMF 종이를 가지고  
영성하게 막아는 창을 통해  
밀려 들어오는 찬바람을 원망하며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잘못을 속죄하고 있는가  
지난 여름 너무 먹고 마시고 했다  
추위와 눈 바람이 무섭다는 것을 너무 몰랐다  
밖에 나가 맘 흘리며 일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비웃기만 했는가  
무엇보다도 고맙했었다는 지난날을  
생각해 내고 있을까

문득 나는 길 건너 저쪽 집의 일을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만을 보고 놀란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인생을 가는데  
한아름 땀감이라도 가지고  
저 눈속을 건너가야 하겠다  
눈 오는 길 옆 얼어 붙은 땅 위에는  
가시 돌린 장미 한 그루 있고  
그 끝에는 아직도 붉은 꽃이 환하게 피어 있다  
눈저지대에서  
황 현 시(空士 6期)  
工學博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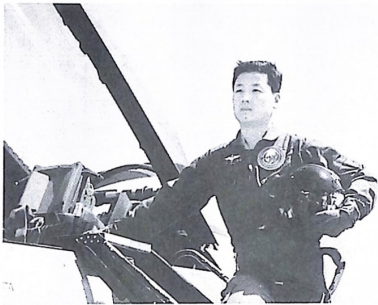
# 母軍·母校·短信



## 고(故) 이근석 장군 동상 제막식

지난 12월 30일 6·25 전란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신 고 이근석 장군의 확고한 국가관과 결연한 사생관을 후배 장병들이 이어받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근석 장군 동상 제막식 행사가 한국 공군 참전군인회 주관으로 제11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되었다.

이근석 장군의 동상 보수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거행된 이날 제막식은 역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참모, 장군의 유가족, 한국 공군참전군인회, 보라매회원, 은나래회원, 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 '97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97년도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제19전투비행단 162대대 소속 정상화(鄭相和, 34세) 소령이 선발됐다. 정 소령은 지난해 전투기탑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역할을 발휘한 조종사로 평가돼 이광학(李光學) 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정 소령은 공사 36기로 '88년 입관하여 중위 때부터 우리 공군의 최정예기인 F-16을 조종하고 지금까지의 비행시간은 2천2백88시간이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인 오태미(吳太美, 33세) 씨와 재연(宰然, 8세), 규연(奎然, 6세) 두 남매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수상 소감으로는 불평없이 내조해 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 동안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상사 선후배 조종사들과 오늘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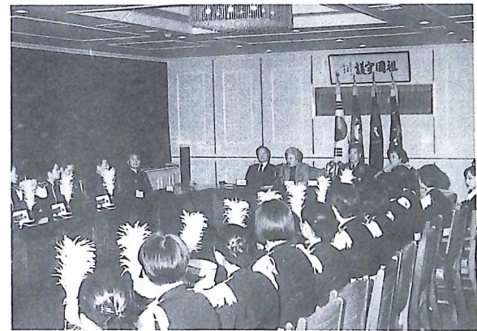
## 공군, 예비역·현역 신년 교례회

- 국가 영공수호의 대비태세 다짐  
- 경제난 극복 결연한 의지 규합

李光學 참모총장은 지난 1월 16일, 역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비역과 현역 장교들을 공군회관으로 초청,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참모총장과 6·25 참전 총력조종사 등 예비역 장교와 현역 장교 350여명이 참석, 작금의 국가적 안보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공군의 역할과 국가가 처한 경제난극 타개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李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戊寅年 새해를 맞아 전환기 안보상황에 부응하여 국가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벽 대비 태세유지와 오늘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은 상생과 공군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정무 제2장관 공사 방문

- 최초 공사 여성도 격려 -

지난 1월 17일 이연숙 정무 제2장관과 이윤주(공사 10기)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사를 방문, 여자 사관생도를 격려하고 교육현황을 둘러보았다.

지난해 최초의 여성도 선발로 남녀평등의 기회를 확대, 첨단과학과 우주항공 시대에 여성의 역할과 미래상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여성주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정무 제2장관실은 '96년 12월 합격자 19명의 여성도를 초청하는 등 공사 여성도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다.

## 신성회(5기)

▶ 신성회는 지난 1월 22일 공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97년도 결산과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98년도 활동계획을 확정지었다.

▶ 한필순 회장은 대전에서 (주)가이아/대덕타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한 박사는 우리의 모든 쓰레기를 정화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 데 실력을 경주하고 있다.

- ▶ 주소변경
  - 박영재: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0-1 한보캐미리 102-201(TEL. 0593-52-6405)
  - 이진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6-1 진로APT 103-801(TEL. 02-632-1831)
  - 한필순: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83-1 가야빌딩 (주)가이아/대

## 期·別·動·靜

- 덕타임즈(TEL. 042-934-6200)
  - 정감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82-2 은행마을 1601호(TEL. 032-552-3027)
  - 신봉림: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1685 삼풍APT 5-210(TEL. 02-532-3230)

## 은하회(9기)

▶ 은하회는 매월 1회의 골프모임과 산악모임을 정례화시키고 있다. 골프모임은 골프회장 서철수 동기가, 산악모임은 산악회장 김광현 동기가 앞장서서 활동을 독려해 가고 있다. 연초 1월 골프모임은 수원기지에서(1월 11일)가 첫

다. 2월 8일(일), 3월 8일(일) 또한 수원기지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 매주(토, 일) 동기생들은 기생회 연락처인 신림동에 자유롭게 모여 맘중만으로 주변 소식을 나누고 있다. 이 장소는 김상태 동기 개인건물로서 사업체의 회장실 일부 공간을 동기생 사무실을 내어 놓아 동기생 활동의 중심 공간이 되고 있다(은하회 연락처: 신림동 884-9321).

- ▶ 강민수: 대만 대표부 대사(TEL. 001-886-2-758-8320/5)
- ▶ 임병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TEL. 042-860-6800)
- ▶ 박종권: 한국항공진흥협회 상근부회장(TEL. 707-3324/5)
- 최일영: 삼성항공 교본

(TEL. 3467-7801/2)

- 김광순: (주)한국하우톤 회장(TEL. 3772-6607)
- 김명길: FIELD CONSULTANT 사장(TEL. 561-0999)
- 김상태: 삼부건축 대표(TEL. 873-4321)
- 한광희: (주)도움 사장(TEL. 661-4245)

## 은성회(12기)

- ▶ 金英雄 同期生은 1998년 1월 1日附로 대한항공 常務理事로 進級
- ▶ 주소변동
  - 朴德熙: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8 한신그린APT A-904
  - 李桂珍: 서울 동작구 삼도2동 건영APT 102-1713(TEL. 823-6035)
  - 金源仁: 경기 고양시 행신동 햇빛마을 일신건영APT 2416-1702





姜 容 求(空士 6期)  
· 空士總同意會 事務總長

'97년 12월 9일과 10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4자회담 본회담은 예상한 바대로 성과있는 합의를 못 본 채 끝났다. 그래서 유일한 성과라면 다음 회담을 금년 3월 15일 제네바에서 열기로 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회를 북에서 열기로 한 정도이다.

사실 이번 회담은 명칭만 본회담이지 예비회담에서 제기된 근본 문제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북한은 상투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예비회담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원했던 세부적인 의제 선결과 이룰 다루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물건너가고 말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4자회담의 장애에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펴기는 어렵다. 어떠한 회담도 처음부터 결과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회담은 더욱 그렇다. 중요한 것은 회담의 목적과 난관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4자회담 제안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은 보자기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회담의 의제내용, 진행방식 등 모든 사안은 4자가 합의 하기에 달렸다. 때문에 4자회담은 결코 아무런 조건없는 백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회담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가 핵심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담의 개최 의미가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4자회담의 성

# 「4者會談」 앞으로의 對備策

패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이 수세적 이유든, 공세적 이유에서든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외면하고 공존을 거부하는 한 4자회담의 전도는 요원하다. 같은 맥락에서 4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전략 또한 분명해진다. 그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공존만이 그들의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설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 노력에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도록 하여 북한이 결코 환상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자회담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 사람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첫째, 4자회담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가장 중심적인 의제는 남북한 관계이어야 하며 회담의 진전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남북한 관계개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결국 남북한 관계이며 지금까지의 적대적 또한 대결적인 남북한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구조는 정착될 수 없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이원화한 후 남북회담을 형식화하는 등 애매모호한 상황을 조성하여 후선을 야기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만큼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의 상호관계의 판단기준을 남북한 관계의 진전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4자회담에서도 긴밀한 한·미 공조는 회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배제와 대미결연을 통해 한·미간 분열을 피하려는 기미가 조급이라도 보이던 그들은 돌볼을 가리지 않고 수단방법을 동원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때문에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북한의 한·미 분열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적절한 역할을 상징하고 중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4자회담은 협정을 통한 문제의 일괄적인 타결보다는 실질적 평화의 점진적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은 합의는 하되 그 내용을 형식적인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합의는 하되 이행을 사실상 공전시킨다든지 하는 그들의 특유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좋은 예가 이미 체결된 남북합의서이다. 따라서 합의 자체보다는 합의의 실천을 회담성과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방식을 지양하고 실천가능한 사항들만 합의하여 이를 즉각 실천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정부는 그동안 4자회담의 구도 또는 운영방식에 관해 상당히 집착해 왔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 방식이나, 「4+2」 방식이나 또는 남북한 평화협정이나, 4자회담협정이나 등의 논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으로 문제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또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며 이를 논의하는 틀이나 논의의 결과를 담은 형태는 신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4자회담을 제안할 때는 주변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당사자 원칙에 지나치게 경직되게 구애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4자회담은 잠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변화이며 이 변화는 단시일에 올 수가 없다. 남

북한 문제는 그 구조적 성격상 어떠한 획기적인 제안으로 국면을 일거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4자회담과 병행하여 대북한 접촉의 채널과 방식을 더욱 다각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자회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남북한 관계의 모든 주파수를 이 회담에만 맞추어 놓거나 연계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4자회담의 진전 여부와 별개로 분명한 원칙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대북한 접촉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대북접촉이나 지원은 당장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적절한 시기를 경우 북한 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담와와 현실간의 거리가 바다처럼 넓은 문제이다. 한국전쟁 종결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모색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긴장지대로 남아 있다. 세계는 탈냉전시대에 있는데 우리는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평화구조가 정착될 수 없었던 것은 평화구축에 관한 방법론의 부재나 차이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반도 평화의 좌절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평화공존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성패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제 정권교체라는 역사적인 정국변화와 IMF라는 시련의 시대를 맞아 다가오는 21세기의 새시대의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북정책에 임하는 새정부 새지도자는 분명한 목표의식하에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 4자회담에 임하고 대북접촉을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면에서 이음)

- △ 김 석 우 (17기) 10만원
- △ 車 宗 洙 (17기) 10만원
- △ 車 玉 煥 (17기) 10만원
- △ 申 明 浩 (18기) 10만원
- △ 김 덕 실 (19기) 10만원
- △ 李 成 律 (19기) 10만원
- △ 池 光 植 (19기) 10만원
- △ 趙 台 衍 (20기) 10만원
- △ 차 종 권 (20기) 10만원

- △ 明 七 元 (21기) 10만원
- △ 洪 鍾 白 (21기) 10만원
- △ 김 통 상 (27기) 10만원
- △ 김 경 호 (29기) 10만원
- △ 김 석 중 (29기) 10만원
- △ 김 성 전 (29기) 10만원
- △ 김 영 권 (29기) 10만원
- △ 김 원 철 (29기) 10만원
- △ 김 영 규 (29기) 10만원
- △ 김 철 생 (29기) 10만원

- △ 나 충 렬 (29기) 10만원
- △ 박 섬 기 (29기) 10만원
- △ 송 창 석 (29기) 10만원
- △ 심 동 환 (29기) 10만원
- △ 심 채 광 (29기) 10만원
- △ 오 승 균 (29기) 10만원
- △ 오 영 봉 (29기) 10만원
- △ 오 한 두 (29기) 10만원
- △ 윤 주 혁 (29기) 10만원
- △ 이 규 북 (29기) 10만원
- △ 이 병 두 (29기) 10만원

- △ 이 원 식 (29기) 10만원
- △ 이 완 수 (29기) 10만원
- △ 이 장 근 (29기) 10만원
- △ 정 남 철 (29기) 10만원
- △ 최 삼 범 (29기) 10만원
- △ 최 승 철 (29기) 10만원
- △ 홍 상 기 (29기) 10만원
- △ 홍 승 조 (29기) 10만원
- △ 홍 재 호 (29기) 10만원
- △ 康 性 毓 (30기) 10만원
- △ 金 元 圭 (30기) 10만원

## 星武台

1월 말경에는 황금연휴가 삼일이나 계속됐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다. 명절이면 객이 떨어져 살던 가족과 친인척이 모여 조상에 茶禮를 올리고 성묘를 할 후에는 어김없이 모여앉아 놀이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투놀이 고스톱이다.

이 고스톱은 비단 명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모였다 하면 장소와 때가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한다. 한번 손을 대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거는 돈도

시작할 때는 적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이 처럼 커진다. 그래서 결국 감정을 상하게 되고 재산을 잃는다. 부처님은 도박에 빠지게 되

를 미치려는가는 직업도박꾼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남의 마음을 읽어야, 둘째 밀친을 많이 갖고 잃을수록 크게 걸어야, 셋째 들

은 되도록 남의 짐수를 불리하게 만드는 짓과 고약한 노름이다.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심술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고스톱에는 원칙보다 노력없는 횡재나 우발적인 행운을 기대하는 허황심과 불로소득만을 바라는 근로정신이 없고 범죄의 동기가 유발된다. 노름빚을 갚기 위해서 감도 짓을 하고 어린이를 유괴살인하며 부녀자를 인신매매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이 잃은 문화 화투놀이를 우리사회에 전파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하겠고 고스톱은 亡國의 놀이문화임을 인식해야 한다.

(編輯室)

## 고스톱은 亡國놀이

면 많은 손해를 본다 고 했다. 도박에 이기면 상대방이 암시를 품게 되고, 지면 자신의 마음이 명이 된다. 이기면 지면 恨을 피할 수 없고, 官家에 잡히게 되며, 이웃의 지탄을 받게 된다. 화투놀이가 사람에게 얼마나 해

키지 않게 속임수를 써라, 넷째 허세를 부려라, 다섯째 執着하는 힘을 시종일관하며, 여섯째 입심으로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라, 일곱째 불리하면 제삼자와 수작을 꾸며라, 여덟째 품갈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기를 꺾어라. 결국 고스톱



徐 鎭 泰(空士 8期)  
· 政治學博士  
· 前 空士 校長

이렇게 엄청난 물량의 국방력 개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화력과 기동성 면에서 괄목할 만한 전비태세의 향상을 이루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휴전 이후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생산적인 보병을 주축으로 유지함으로써 병력을 잃고 있는 현 국군의 규모와 편성에 대하여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최종한 조치를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전비태세 향상을 위하여 인력(소총병)은 조속히 감축하고, 이중의 일부는 공군과 해군에서 아직도 고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율곡(전력증강)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 병력의 충원에 전용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부의 현역 대체계획의 일환으로 25,000명의 현역 병력을 증가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양보다 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군운영의 기본정신을 벗어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방정책을 다루는 지도자들이 한반도 방위상에서의 한국군의 위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수구적 편견(片見)의 偏見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줄여야 할 육군에 70%(17,500명)를 할당하고 율곡사업으로 추가 병력 충원이 절실함 요구되고 있는 공군에 20%(5,000명), 그리고 해군에 10%(2,500명)밖에 배정하지 않았다.<sup>1)</sup> 이것은 거론적인 통합 전력건설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군비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세계적세와 국가 재정현편을 살피면서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군조직의 지휘계선의 조정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국가재정의 1/4(약 26%)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비의 절약방안을 공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강구해볼지도 하다. 예컨대 국방재정의 약 70% 이상을 운영유지비에 사용하는 데 이중 인건비(예: 소총병 1명당 최소한 연간 약 1,200~1,500만원으로 추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보병 요원에 대한 과감한 감축방안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sup>2)</sup>

국방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단 결정되면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함이 정도이다. 육군참모총장의 이종구(李鍾九) 전임 국방장관이 제임 중 누누이 강조한 대로 "비록 육군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해·공군의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배정비를 해군과 공군 위주로 했어야 옳았다.<sup>3)</sup> "왜냐하면, 해·공군 정비사 1명 부족한 것과 육군의 정비사 1명 부족한 것을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sup>4)</sup> 주 장관은, 모름지기 각

# 國防政策의 透明性和 公正性(II)

군은 총체적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전환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공군과 해군 중심의 충원을 지지한다. "예를 들면, 육·해·공군에서 각각 20%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육군은 40%, 해·공군은 각각 10%가 부족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한다." "타군은 아랑곳없이 자군만의 입장을 고집한 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통합전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주 장관의 대승적 소신에 공감하는데 주저하여서는 안되겠다.<sup>5)</sup>

신론에 보도된 대로 만일 60만 명을 20만명으로 감축한다면 이에 따르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심리적인 제반분야에 파급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총체적인 국가안보정책의 틀 속에서 대내·외적인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축을 위한 국가대전략부터 확실히 다시 정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미국의 지원없이 한국 단독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미 쌍무동맹관계 유지가 지금이나 미래에도 한국의 안보이익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sup>6)</sup> 즉, 한국의 국가 방위의 대전제는 한·미 억지전략에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상군은 한국군이 주축이 되고 공군과 해군전력은 미국의 증원전력에 의존한다는 뜻인데 국군의 규모를 거두절미(去頭截末)하고 산술적으로 20만명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보도는 이해가 안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주권 수호를 위해서 질적으로 대폭 강화된 최소한의 정당방위 능력을 확보하려고 공군과 해군전력을 상당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전제로 20만명선 규모라면 다소 납득이 된다. 그런데 후자(절적 보강)의 경우는 공군과 해군을 최소한 현재의 병력수준 이하로는 감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대신 노후장비를 최선에 고성능 장비(공군의 경우 F-5C, F-15E, F-22 또는 JSF: Joint Strike Fighter, 해군의 경우 Aegis급 전투함 등)로 교체하면서 공군력과 해군력의 질적수준(質的水準)을 월등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공군의 경우 유사시 개전 초의 전투기 전력만이라도 현재 연합사/공군구전작사작전계획 5027의 시차별 전력 전개 목록(時差別戰力展開目錄)(TPFDL: Time-Phased Force Deployment List)에 지정된 첫날(C-day)분의 전력수준으로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sup>7)</sup> 왜냐하면, 미국의 공군전투기의 참전결정에는 조기보병능력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최소한 12~18시간의 행정지연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따라서 전력 보강상 공군과 해군의 경우 현재 수준 이하의 병력으로 하향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군 전체 규모를 만일 20만명선으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면 공군과 해군이 국군 전체 병력의 최소 절반 이상을 점유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오히려 병력 10만선의 육군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현재 육군:공군=약 2.5:1).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속도(speed), 정밀성(precision), 명중도(accuracy), 그리고 일격필파의 파괴력(devastating effect)에 의한 신속한 전투구역/전장관리(戰場管理: battlespace/battlefield management)를 요구할 것이고,<sup>9)</sup> 분, 초를 다루는 정확한 시기에 전문가적으로 지휘관단을 하지 않고서는 고가의 정밀장비에 대한 비용 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sup>10)</sup> 한 대에 300억~500억 원 이상되는 전투기를 지원 관리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적합한 생산성(비용 대 효과)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 공군 조종사 대위한 명이 공중에 서 책임지고 운영 하는 국가자원이 일반 중소기업 몇 개의 연간 매출액에 해당한다. 약으로의 관리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담당하지 않으면 군에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고 전시는 물론 폐시에도 국제경쟁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예: PKO 임무로 편지하여 한국군을 파견할 때). 고도로 기술화되고 또한 전문화된 정밀 고가장비를 운영하는 공군과 해군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병력이 많다고 비기술군인 육군에 감제로 병합하여 단일군으로 통합하려는 발상은 선진화를 향하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개인소속 \$10,000 이상, 상비군 20만 이상 유지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국가는 비록 호칭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각 군의 최고 지휘관(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 참모회의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부연하면, 무기체계의 고도의 전문기술화와 고가 장비운영에 따른 방대한 예산 집행, 그리고 고도의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전문가적 지휘관리 때문에, 폐시 양병(養兵: 모집/교육훈련/임용/진급/보급/유출 등의 인력관리와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의 계획/회계/집행)은 각군 출신의 전문가로서의 최고 지휘관리 각 군의 참모총장 지휘관리에 두고, 유사시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자문과 보필을 받아 전력을 총체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합참의장에게 용병(用兵: 전투작전을 지휘감독)의 책임을 부여하여 민주체제의 대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육·해·공 3군의 합동체제이다. 그리고 인테르파스 통선에 의하면, 소비에트 공화국(USSR)의 후신으로 민주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는 Russia까지도 "3군 체제로 재편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다.<sup>11)</sup>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각 군별로 현용 무기체계의 유지관리를 어느 군에서 총괄 운영함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오히려 시의 적절한 생산적일 수 있다. 항공자산(특히 고가 중장비)에 대해서는 임무수행상의 고도의 전문 기술성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영국과 불란서에서는 CH-47과 S355/365 등 대형 헬기를 공군에서 일괄 운영하여 지·해상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Nimrod 해상초계기를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 AH-64와 같은 공격용 헬기를 포함하여, 일체의 항공자산을 공군에서 일괄 관장하고 있다.<sup>12)</sup>

## 5. 전비태세 개선정책의 호혜성(互惠性)

셋째, 이번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통합군」안은 사안을 검토/취급하는 절차와 과정상에서부터 호혜성(互惠性)을 결여하고 있다. 「통합군」안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거론되어 오고 있다. 이번 1997년도의 가정 「통합군」안은 현존 육·해·공 3군을 단일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6공화국 당시의 「818계획」안(1988~1990)과 유사하다. 「818계획」안은 국방부에서는 물론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논란을 거쳤고 결국 각군 참모총장들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다시 심의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가 유보(留保)되었다.<sup>13)</sup> 이렇듯 유보된 사안을 대를 이어서 집요하게 또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육군출신의 군 지도자들이 선진화의 시대적 대세 때문에 육군의 병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될 때 따른 위상(位相)의 위축(萎縮)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 신장되어야 할 공군력과 해군력을 잠악하려는 정치적 야망의 오해를 못 벗어나는 것 같다.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렇듯 끈질기게 공군과 해군을 육군 예하로 통제하며 국군(國軍) 전체를 육군출신의 가정 「국군참모총장」 휘하의 단일군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저의(底意)는 분명히 병력 삭감에 따른 기구축소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자구적(自救的) 이의 추구가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듯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예컨대 50만명 이상의 병력을 3개 야전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육군규모를 10만명선(예: 육 10만, 해 5만, 공 5만)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상정하게 되면 1, 2, 3 야전군 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3명의 4형 장군의 직위를 잃게 된다. 만일 3개군의 인수 사령부와 교육사령부를 통합한다고 가정하면 증편된 가정 「국군군사령부」와 「국군교육사령부」를 신설할 수 있어 2개의 4형 장관 직위는 살아 남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때문이다.

공군은 기술군의 특성 때문에 항공기를 적시에 신속히 정비하여야 하는 지원업무의 비중과 군수업무의 중요성이 어느 군보다도 크고, 따라서 고도의 전문기술에 의하여 전문가적으로 군수지원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정비와 기타 운영관리를 위하여 가장 많은 전문기술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군은 바로 공군이다. 무기체계의 내용과 주어진 임무와 기능의 특성상 당연하다. 따라서 물리





金容植 教授  
·法王佛敎大學

우리는 東邦禮儀之國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事實上 東洋에서 禮儀바른 나라로 自處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現實은 어떠한가? 東洋에서 가장 無禮한 나라 無秩序한 나라로 轉落하여 버렸다.

이 는 人間 敎育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日帝로부터 光復을 되찾은 지 50年 동안 過渡期를 거쳐 祖國近代化를 爲하여 몸소 先導의 役割을 하였으며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을 數次 樹立하여 經濟發展을 期待하다 보니 人間敎育이 失蹤되었던 것이다.

그러서 科學文明, 機械文明은 어느 程度 先進國에 近接하여 왔으며 가난에 시달렸던 衣食住는 解決됨으로써 物質의 豊饒를 누리고 살고 있으나 精神文明과 禮節文化는 抹殺된 狀況에서 人間다운 生活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이면 保安燈 없이 살 수 없으며 晝間에도 盜犯이 隨步하고 있으니 恐怖 社會에서 不安한 生活를 하고 있는 것이다.

社會 不安 樣相을 보면 1960年代에는 한탕主義로 해서 物慾을 채우려고 犯行을 恣行하던이 1970年代에는 幼兒를 誘拐하여 人間을 擔保로 하여 金品을 要求하고 1980年代에는 婦女子를 拉致하여 人身을 賣渡하는 手法로 까지 進展되었으며 1990年代에 와서는 어떠한가? 慘倫殺人으로 子息이 父母를 殺人하는가 하면 父母가 子女를 殺害하는 樣相에도 바뀌었으니 親子間에도 말도 할바로 못하고 무서워서 살 수 없는 社會가 되어 버렸다.

이제는 犯行의 對象이 親族으로 標의 이 되었으니 可憐한 社會로 變換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無禮하고

無秩序한 社會로 變換한 것이다. 各種 犯罪者中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이 未成年者 性暴力者임은 再言을 不要하는바 이들의 所行을 보면 性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의 잇따른 性폭력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慘憺한 心情을 넣어 忿怒가 치밀게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피해자들은 落胎의 苦痛에 시달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가 하면 이를 憐觀한 피해자는 우울한 날을 보내다가 自殺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 社會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 가슴쓰러운 것은 가해자들 상당수가 피해자들의 이웃들이라는 것이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11살짜리 소녀가잠을 무려 14명의 이웃들이 깃뚫았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13세 이하가 29%가 된다. 20대 피해자가 31%에 근접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친족, 이웃 아저씨, 직장상사, 동료, 경비원, 담임교사라는 데서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성폭력 실태를 발표한 것을 보면 최근 6개월간의 성폭력 사건수는 무려 3,265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이웃이나 친척, 애인, 직장 동료 등 지인관계가 43%인 1,405건으로 집계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성범죄자 가운데 대를 이삼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27%인 881건이나 된다 하니 성범죄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더 놀란 것은 외국의 예이기는 하지만 수입 전 임기간 보도를 보면 독일에서는 처벌 교환해서 살자는 그룹이 생겼다 하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여자고등학교 내에 미혼모 유아보호소가 설치되었다 하니 참으로 천인유가 忿怒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先進國

이라는 나라 사람의 行動인 것이다.

이러한 性文化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누가 保障하겠는가?

어느새인가 우리나라에도 젊은(10대 후반) 女性들의 衣裝을 보면 배꼽을 내놓고 시내 거리를闊步하는 時代가 되었으니 서독문화, 미국문화가 곧바로 들어올 것을 철저히 對備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事前에 豫防하기 爲하여 은國民이 한몫어리가 되어 家庭敎育, 學校敎育, 社會敎育에 한 사람 배집없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孔子께서도 人 不 人 人 說라 하여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人字 四字(人 人 人 人)을 써놓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어야 사람이냐라는 말로 人間敎育을 시켰다 한다.

世界的으로 有名한 心理學者 孟子는 母親의 孝를 현대 敎育을 받아 世界人類가 推仰하는 人物이 된 것이다. 孟子의 어머니는 孟子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이나 移徙를 했다 한다. 現代人들은 職場을 爲하여 移徙하는 사람이 있어도 子女敎育을 爲하여 移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孟母三遷之敎라는 敎訓을 後世에 남긴 것이다.

卽, 孟子 어머니가 산기슭의 住家에서 生活할 때 세살된 孟子의 노는 것을 보니 孝를 모아서 蓆를 쓰는 시늉을 하며 悲興 소리를 하고 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두번째는 市場近處로 移徙를 갔었다. 그랬더니 孟子는 商人들이 하는 싸주려를 외치면서 물건 파는 시늉을 하면서 노는 것이 아닌가?

孟母는 이곳에서도 사람 살 곳이 못된다 하고, 세번째는 鄉校 옆으로 移徙를 갔었다. 그곳에서 孟子는 글工夫하는 모습을 보이며 읊하고 禮節하는 시늉을 하므로 禮節에서는 이곳이야말로 사람이 살 곳이다하고 定着하여

살면서 世界的인 大賢으로 길러 낸 것이다. 孟子는 浩然之氣를 探究하여 萬善之源을 主張하고 天地之理는 萬物之理요, 萬物之理는 곧 吾人之理라는 有名한 原理를 남겼다.

여기에서도 三歲之聖人 至于八十이라는 習의 말씀이 같은 脈絡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때부터 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敎育의 現住所를 보면 技術敎育에만 嚴重하고 人間敎育은 疎外시켰기 때문에 技術者 養成敎育으로 化한 것이다. 學校敎育以前에 더 重要한 것은 家庭敎育이다. 幼兒敎育을 누가 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兒의 資質을 알 수 있다. 지금의 產母는 아이를 出産한 해 놓고 키우는 것은 產母가 아닌 單 사람이 키우기 때문에 母子間에 따뜻한 情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 社會는 人間美가 없는 社會로 變換한 것이다.

그래서 敎育은 國家百年之大計를 左右하는 試金石이라 한 것이다. 敎育을 通해서만 人間의 資質을 向上하는 것이기 때문에 人格陶冶에 는 人間敎育이 必須의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幼稚園에서부터 禮節敎育을 시켜야 하며 初等學校에서도 倫理敎育을 시켜야 하고, 中學校에서는 孝道敎育을 시켜야 하며 高等學校에서도 忠義敎育을 시켜야 하고, 大學校에서도 道德敎育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하여 幼稚園 先生에서부터 大學敎授에 이르기까지 眞實한 者를 알고 兒童敎育에 臨하는지가 疑問인 것이다.

그러므로 授業을 시키는 先生님 自身이 孝를 얼마나 아는지 또는 얼마나 實踐하는지가 問題인 것이다. 自己는 孝를 實踐하지 않으면서 兒들을 가르치는 것도 異常하지만 孝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더 重要한 것이다. 요즘은 大學을 修了하여도 孝를 모르고 卒業을 하니 父母에 不孝할 수밖에

에 없을 것이다. 배우지 안됐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도 當然한 것이다. 이웃 日本에서는 大學을 마치고 職場에 就職을 하면 四書三經冊을 職場으로 가지고 가서 道義工夫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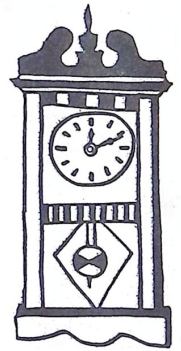
옛날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父母에 孝道하고 못 배우고 無識한 사람이 父母에 不孝하는 것으로 社會 通念에 評價하였는데 現代에 와서는 많이 배운 사람(大學, 外國留學)이 父母에 孝道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이(初等, 中等 修了者) 父母 앞에서 家業을 도무새 孝道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지금의 社會風潮는 입을 封하고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

19歲 青年이 60歲 老人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老人이 訓戒를 하니 自己가 무엇인데 나를 相關하고나고 頂버들어 老人을 毆打하여도 누구하나 달리는 사람이 없었는가 報道를 보고 具眼之師라는 말이 생겼다.

이와 같이 社會 어느 장소든지 人倫을 벗어난 言動을 하면 社會 指導層 人士 여러분이 구경만 하지 말고 具眼之師가 되어 現장스승으로 指導하여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人間學을 배우고 가르쳐서 人間다운 生活의 質을 높이는 살기 좋은 社會가 되기를 期待한다.



### 칼럼

얼마 전에 수원시내 도심지에서 있었던 일은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대로변 길목에서 80세가 넘어보이는 노할아버지와 60세쯤된 중노인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친진한 아기같은 노인의 흘러내리는 바지를 아들이 추켜 올려주다가 했다. 自販機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할아버지에게 음료수를 빼다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 마시지도 않고 반컵을

아들에게 내밀자 그것을 얻은 발아 마시는 그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드문 진경경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이 순간들이 왜 이렇게 가슴을

## 60세 아들의孝心

몽글하게 하는가. 90세가 넘는 노모를 모신 내 입장에서 그 孝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일 것이다. 지금은 많이 늦어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일찍이 이같은 모습들을 늘 간직해 왔었다. 이들의 세심하고 구김없

는 그 배려 속에서 깊은 철학을 배웠다. 그것은 어느 아름다운 꽃의 향기에 비길 수 없는 향긋함이었다. 요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산교육의 인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그 모습이 짙은 기억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들인 중노인에게 가슴 깊이 배어 있는 孝의 진한 향기 때문이리라! 孝道는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가용을 사서 효도관광 시켜 드리

고 효의효식 해드린다고 해서 만점짜리 孝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외로워 하실 때 화를 불처럼 따스한 말씨로 대답하고 말씀드려야 한다. 비록 나물국을 드려도 미소짓는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고 수시로 찾아뵈어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이 가장 평범하고 비범한 孝道이다. 각박한 삶에 너무 얽매어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은 60세 아들의 꾸밈없는 孝心이 꽃향기보다 진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자.

(編輯室)



# 21세기를 열어가며

## - 항공안전과 보안의 새로운 도전 -



朴鍾權(空士 9期)

· 한국항공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오늘날 세계 항공운송사업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항공여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와 항공자유화의 확산은 항공운송사업을 더욱 치열한 경쟁체제 속으로 몰아 넣고 있으며 각국의 항공사들과 공항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저마다의 경영혁신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항공사로 도약하며 21세기를 열어가려는 우리 항공운송업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경전략과 체제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위치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위협을 받고 있는 항공기 안전과 공해 및 항공기 테러로부터의 보호는 항공운송산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은 IMF 구제금융 시대라는 큰 소용돌이 속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 백악관 항공안전보안 보고서의 의미

지난 '96년과 '97년은 '85년 이래 항공사고가 가장 많았던 해들로 50명 이상의 인명손실사고만해도 '96년에 12건, '97년에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안전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ValuJet 592편 추락사고('96. 5. 11.), TWA 800편 공중폭발사고('96. 7. 17.), 인도에서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잉 747기와 카자흐스탄의 일류신 76기의 공중충돌사고('96. 11. 23.), 공중납치된 후 연료고갈로 인도양에 불사착한 에티오피아의 보잉 767기 사고('96. 11. 23.) 등이 '96년의 대표적인 사고사례이며, '97년에는 대한항공 747기의 괄 추락사고('97. 8. 5.)를 비롯하여 베트남 항공의 T134기 사고('97. 9. 3.),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의 A300기의 추락사고('97. 9. 26.) 등이 대형사고의 예이다.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항공안전과 보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예가 될 것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이렇듯 항공안전·보안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별지시로 앨 고아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백악관 항공안전보안위원회(White House Commission on Aviation Safety & Security)를 구성하여 6개월간의 작업 끝에 작년 초('97. 2.) 민간항공의 안전책서라 할 수 있는 항공안전보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 보고서는 항공안전 개선, 항공교통관계 현대화, 여행자보안 개선 그리고 항공사고 사후대책 등 4개 분야에 총 57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조치로 "휴먼 팩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강조, 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항공보안기금의 신설, 승객분류 시스템 및 폭발물탐지 시스템의 개발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규칙과 절차를 개선하고 표준화하여 이들 조치내용을 전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지적과 개선방향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항공운송업계의 공통된 문제로서, 절실한 문제의 인식과 향후 대비책의 감구차원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 휴먼팩터(Human Factors)의 새로운 인식

세계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최근에 항공사고조사를 통하여 밝혀낸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종사나 관제사, 정비사 등 현장종사자의 실수는 단지 사고를 촉발하는 하나의 단말에 불과하며 그 이전에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실수나 오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항공운송의 현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조직의 정책결정과정에 실수나 오류로 인해 작업현장과 안전시스템에 결함이 초래되었고, 이 결함들이 현장종사자의 인적 실수와 결합되어 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항공안전과 조직적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조직문화, 기업의 변화와 성장시 이에 대한 관리, 경제적 압박 그리고 조직 내에서 정보가 다루어지는 형태 등이 항공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항공조직의 경영관리층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안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조직적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안전시스템 관리와 그 결과가 경영관리자의 큰 역할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안전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의 도입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공사고 이면에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위험요소를 이 평균 360여 건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었다면 항공사고는 충분히 예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를 비롯한 항공선진국들은 항공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항공안전사건이나 기타 위험요소들을 즉각 개선하기도 하고 또 타국과 자료를 교환하여 유사사태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항공안전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부터 이미 알려져 있는 제도이긴 하나 이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이 되었고 또 각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다. 현재 우리 정부당국도 이 제도의 활용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는바 조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도화하여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항공보안(Aviation Security)의 강화조치

전세계적으로 확산조짐이 있는 항공기와 공항에 대한 테러는 그 성격상 국가에 대한 테러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현실과 또한 무차별 공격의 암상을 띠어가는 국제테러집단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항공보안검색을 비롯한 대테러 대비태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3의 위험요소로부터 항공기와 공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객과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수법에 대비한 보안검색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간 항공운송산업분야는 21세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제2의 도약기대 속에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경영상황과 정책과제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항공안전과 보안문제는 항공운송산업의 기본전제이며 동시에 업계는 물론 국가와 국민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변화하는 위험들을 정확히 조망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항공업계가 더욱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編輯後記와 寄稿文 案内

IMF 時代를 맞아 온 나라 안이 뽕뽕 얼어 앞날에 대한 희망의 등불이 암울한 가운데, 얼마나 걱정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인생은 뽕뽕으로만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9백30회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민족은 이를 극복하고 찬연한 문화를 꽃피워 왔음을 우리 星武人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동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기금 조성을 위해 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사람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처럼 공사 출신 성무원의 인연은 영원한 정분이기에 그동안 체험하신 귀중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혼자만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동문들 간에 나누는 것도 보람 중에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상징하는 배지를 제작 배포한바 있지만 '97년도에 전역하여 수령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기생회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 期生會 動靜 또는 消息은 200字 × 5枚 內外
2. 自由寄稿時 主題는 自由 枚數 200字 × 25枚 內外
3. 보내실 곳 : (우 : 150-057)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 1178  
TEL : (02) 845-1090  
FAX : (02) 845-1091


 社団法人 韓國航空振興協會  
 Korea Civil Avi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 세계 초일류 항공업계가 21세기를 열어갑니다



 한국항공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부정기항공사업협회



삼재를 몰아낸 호랑이 민화



서울 대공원의 호랑이

# 호랑이해 얽힌 이야기

'98年 戊寅年. 옛부터 민간에서는 호랑이를 山神으로 여겨 崇拜하였으며 家庭에서는 호랑이가 그려진 民畫를 걸어놓고 災殃과 病鬼를 물리친다는 이 호랑이가 과연 올해 우리에게 어떤 希望을 안겨줄 것인지 戊寅年 호랑이해를 맞아 띠풀이와 함께 호랑이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 호랑이 띠풀이

범띠는 예로부터 民間信仰에서 보통 띠와는 다른 관심을 모았다. 유명한 스님들의 대부분이 범띠해나 범띠 달밤에 태어났으며 四柱에 범이 들어간 사람 중에는 宗教家와 藝術家가 많다.

또 호랑이는 은둔과 방랑이라는 천부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어 범띠 중에는 고독 또는 俗世를 등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범띠는 대체로 통솔력과 충동성이 강하며 원기가 왕성하나 칠새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참을성 없이 행동하기도 한다. 매사에 서두르는 경향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호랑이는 닭 우는 소리를 싫어해 호랑이띠와 닭띠는 궁합이 좋지 않지만 호랑이의 포효와 개의 짖는 소리, 말의 울음소리는 서로 화합하기 때문에 호랑이, 말, 개는 三合關係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생활 속의 호랑이

人間이 되지 못하고 굴에서 뛰쳐나온 호랑이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는 야성이 매우 강해 옛부터 인간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호랑이를 信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호랑이 崇拜思想은 곧 山神信

仰으로 자리잡았는데 산신도에 나오는 호랑이를 보면 무섭고, 사냥기보다는 점잖고, 친근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民間의 吉凶禍福을 사려깊게 관찰하는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民畫에도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호랑이가 귀신을 물리치는 신봉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을 비롯해 일반 민간에서도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여 범귀의 침입을 막는 풍습이 있었다.

무관의 관복 흉배에 호랑이를 수놓았기 때문에 민가에서는 호랑이 그림을 걸어두면 높은 벼슬의 귀한 아들을 얻는다고 믿었다. 이같이 호랑이는 邪된 존재를 멀리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壁上의, 實相的 의미가 강했다.

그들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한다.

옷을 벗어 호랑이 앞에 던져 호랑이가 집어든 옷 주인이 먹이가 되기로 하여 결국 왕건이 선택되었으나 왕건이 굴 밖으로 나오자 굴이 무너지면서 호랑이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얘기가.

또 김현의 설화에서는 호랑이가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온다. 소녀로 변신한 호랑이가 김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해준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행위에 감동한 호랑이가 인간을 도와주는 경우는 많았다.

그렇지만 토끼의 꼬임에 빠진 호랑이가 추운 겨울날 얼음물에 꼬리를 담그고 물고기가 물려들기를 기다리다가 꼬리가 얼어붙어 사람들에게 잡혔다는 이야기나 꽃감이 자기보다 무서운 존재인 줄 알고 도망가는 「호랑이와 꽃감」의 경우처럼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희화한 경우도 있다.

## 호랑이에 얽힌 說話

결국 호랑이는 매섭고 두려운 맹수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미워할 수 없는 동물로 묘사되어 왔으며 어리석고 의용스러울지라도 간교하지 않은 무직함이 돋보이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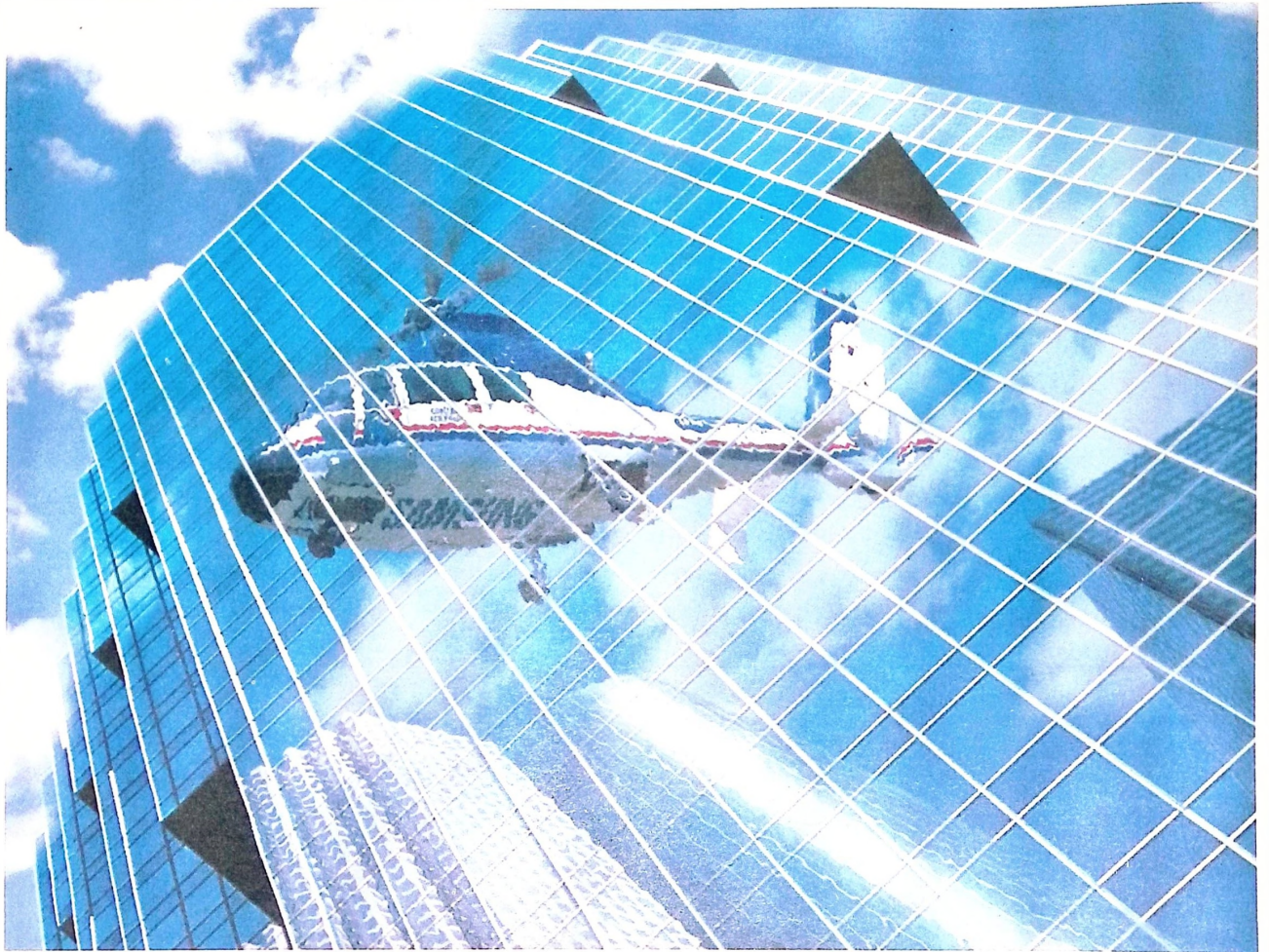
IMF 시대의 어려움을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의 지혜로 난관을 헤쳐나가 새로운 설화를 만들어야 하겠다.



호랑이 부처. 화를 막고 복을 기원



쌍호흉배. 권세부귀 상징



# 이제 비즈니스는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삼성항공의 비즈니스헬기로 전국사업장을 하루에 돌아보십시오

## 빨리 모시는만큼 OK도 빠릅니다

007가방에 선글라스를 끼고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  
 그 멋진 비즈니스맨은 더이상 영화속의 모습이 아닙니다.  
 외국바이어를 모시고 전국 사업장을 방문할 때도,  
 촌각을 다투는 초특급 비즈니스출장을 가야할 때도—  
 삼성항공의 비즈니스헬기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귀하의 사업에 품격과 기동력을 더해드릴  
 삼성 비즈니스헬기— 삼성항공이 열어가는 SKY  
 BUSINESS 시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술로 내다보는 우주 미래 행복



삼성항공